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10

연금·은퇴·장수위험

연금의 층을 연결하고 오래 살 위험·의료·돌봄을 월 현금흐름으로 준비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역할을 구분한다.
- 은퇴 현금흐름과 장수·의료·돌봄 위험을 시험한다.
- 수령 시기·일시금·연금·운용·비용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
- 고수익 권유·조기 인출·보호 범위 오해를 막는 규칙을 세운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은퇴 준비는 큰돈을 모으는 경쟁이 아니라 오래 이어질 생활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은퇴 뒤에는 소득이 줄어도 주거·식사·의료·돌봄 비용이 계속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고, 오래 살수록 돈을 쓰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연금·실질가치·현금흐름·장수위험·인출의 기본을 먼저 배워야 여러 연금과 자산을 생활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은퇴 후 기본생활비
- 의료·돌봄 비용
-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 배우자·가족의 소득 공백
- 사기·과도한 인출로부터의 자산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연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실질가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은퇴 현금흐름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장수위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인출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노후자산 규모보다 생활비 현금흐름을 먼저 가르칩니다.
- 장수위험을 고령 자체의 문제로 낙인찍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세금의 개별 최적 선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인지저하·대리·상속 문제는 EDU-11로 연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연금

일정한 요건에 따라 노후 등에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 생활 예: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개시 조건과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반대 예: 이름에 연금이 붙으면 모두 같은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연금마다 가입·납입·수령·세금·보장 구조가 다릅니다.
- 이해확인: 연금 상품은 모두 평생 같은 금액을 주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제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가치

물가를 고려한 돈의 실제 구매력입니다.

- 생활 예: 10년 뒤 월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수가 줄 수 있습니다.
- 반대 예: 통장 숫자가 같으면 생활수준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은퇴계획은 명목금액과 함께 물가를 반영한 생활비를 봅니다.
- 이해확인: 연금액이 그대로면 구매력도 그대로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현금흐름

은퇴 뒤 들어오는 소득과 나가는 생활비의 금액·날짜입니다.

- 생활 예: 연금 지급일과 월세·보험료·의료비를 월별로 적습니다.
- 반대 예: 보유자산 총액만 알면 매달 생활비는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자산은 생활비로 바꾸는 시점과 방법이 있어야 현금흐름이 됩니다.
- 이해확인: 집값이 높으면 매달 생활비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현금화·임대·대출 등 방법과 비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장수위험

예상보다 오래 살아 생활비가 부족해질 위험입니다.

- 생활 예: 90세 이후까지 필수생활비와 돌봄비가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 반대 예: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연결: 장수위험은 오래 사는 삶을 지지할 소득·의료·돌봄 자원의 부족을 뜻합니다.
- 이해확인: 평균수명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도달 기준: 개인의 수명은 다르므로 더 긴 기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인출

모은 자산을 생활비로 꺼내 쓰는 일입니다.

- 생활 예: 시장 하락기에 얼마를 꺼낼지와 현금성 자산을 구분합니다.
- 반대 예: 필요할 때마다 계획 없이 큰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 연결: 인출률·시점·세금·남은 기간이 자산 지속성에 영향을 줍니다.
- 이해확인: 수익률이 높았던 해에는 생활비를 크게 늘려도 되나요?

도달 기준: 장기 계획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은퇴와 장수위험

도입 질문: 오래 사는 것이 왜 금융위험일까요?

장수위험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생활비와 의료비가 준비한 자산보다 먼저 소진될 가능성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 없이 지출이 계속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총액뿐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나가는 생활비의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은퇴 뒤 월 필수생활비를 추정합니다.
- 판단 순서 2: 공적·퇴직·개인연금의 월 수입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부족액과 지속 가능한 보완 방법을 계산합니다.
- 시범 사례: 은퇴자산 2억원도 매달 250만원을 쓰는 경우와 120만원을 쓰는 경우 지속기간이 다릅니다.
- 바로잡을 오해: 목표 자산액 하나만 달성하면 은퇴 준비가 끝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은퇴자산 총액만 알면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월 지출, 연금수입, 기간과 물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도입 질문: 연금은 모두 같은 돈일까요?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퇴직연금은 근로기간의 퇴직급여를, 개인연금은 개인이 추가로 준비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입·운용·세금·수령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한 제도의 예상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액처럼 단순 합산하지 말고 각각의 지급개시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각 연금의 가입기록과 적립액을 조회합니다.
- 판단 순서 2: 지급개시 연령과 수령조건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세금·수수료·운용위험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시범 사례: 국민연금 예상액과 퇴직연금 계좌 평가액은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거나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 바로잡을 오해: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두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세 연금의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은퇴 월소득이 될까요?

도달 기준: 지급 시점·기간·세금·운용결과가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적립·운용·비용

도입 질문: 오랫동안 모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연금자산은 납입금, 운용수익, 수수료와 세금의 영향을 장기간 받습니다. 작은 수수료 차이도 기간이 길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높이려 하기보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 손실 감내수준, 분산과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 판단 순서 1: 납입액과 납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운용상품의 위험과 수수료를 봅니다.
- 판단 순서 3: 정기적으로 목표와 자산배분을 점검합니다.
- 시범 사례: 은퇴가 가까운데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부분 투자하면 하락 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과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이 미래에도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확인 질문: 수익률만 비교해 연금상품을 고르면 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수수료·위험·기간·수령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수령방법·물가·의료비

도입 질문: 같은 적립금도 받는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일시금과 연금형 수령은 세금, 사용 속도, 장수위험 관리가 다릅니다. 정기수령도 기간과 금액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고, 의료·돌봄비는 나이가 들수록 커질 수 있어 별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 판단 순서 1: 월 필수비와 선택비를 나눕니다.
- 판단 순서 2: 수령기간과 세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 판단 순서 3: 물가·의료·돌봄비 변화에 따른 재점검일을 정합니다.
- 시범 사례: 월 150만원이 지금은 충분해도 15년 뒤 물가와 의료비가 오르면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은퇴 직후 지출만 기준으로 평생 계획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 확인 질문: 예상연금금액이 생활비보다 크면 점검이 끝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세금·물가·의료비와 지급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연금액은 같지만 생활비가 오른 경우

은퇴 첫해 연금은 월 150만원이고 필수생활비는 130만원입니다. 몇 년 뒤 생활비가 1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결정: 현재 실질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정보: 연금의 조정 방식과 다른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위험: 명목 연금액만 보면 생활비 부족을 늦게 발견합니다.
- 행동: 선택지출·인출·주거·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기록: 매년 같은 달에 생활비와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월 지급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연령·주택·보증료·상속 정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것: 주택가격만으로 월 지급액을 예상하거나 일반 예금성 연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가입요건, 지급방식, 초기·연 보증료, 실거주·추가주택 조건, 중도해지와 사망 후 정산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예상조회와 상담으로 배우자·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비교합니다.

공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검토 2026-08-24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기초연금·장기요양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재산·가구·인정등급과 신청 시점에 따라 대상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나이나 주변 사례만으로 받을 금액과 서비스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기초연금 대상·산정 방식과 장기요양 인정·본인부담을 각각 공식 모의계산·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은퇴 현금흐름표에 예상액 대신 '공식 확인 전'으로 표시하고 확인 날짜를 남깁니다.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 검토 2026-08-24

<https://basicpension.mohw.go.kr/>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퇴직금 일시금

대출 상환을 위해 전액 일시금을 받으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현재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한 표에 둔다.
- 추가정보: 수령 방식과 세금은 제도·계좌별로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부채이자 절감과 평생소득 감소를 함께 계산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빚을 없애면 끝이라고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고수익 투자로 불리려 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연금 시기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 고민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나의 현금흐름과 장수위험으로 결정한다.
- 추가정보: 공적연금의 최신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건강·근로소득·가족수명·다른 자산을 넣어 손익 분기보다 생활 안정성을 본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월액이 큰 쪽만 고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주변 사람과 같은 시기를 택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자녀 지원

주택자금을 지원하면 노후자금이 크게 줄어든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도움의 상한과 중단 조건을 정한다.
- 추가정보: 가족지원이 장기화되면 부모·자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내 필수생활비와 돌봄비를 먼저 보호하고 지원 한도를 합의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필요한 만큼 모두 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연금 담보 대출을 즉시 받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돌봄비 급증

간병이 시작됐지만 비용 기간을 모른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기간이 긴 위험으로 계산한다.
- 추가정보: 공적 제도의 인정·급여 절차는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공적 장기요양·보험·가족 돌봄 가능 범위를 확인해 세 시나리오를 만든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한 달 비용만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모든 자산을 급히 해지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고수익 권유

연금 생활자에게 원금보장 고수익을 약속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연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분리한다.
- 추가정보: EDU-01의 사기 예방 절차와 EDU-12의 투자 점검을 함께 적용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송금·해지를 멈추고 등록·계약·보호 범위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지인이 소개했으니 투자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생활비까지 옮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연금은 모두 원금이 보장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월 수령액이 크면 언제나 유리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은퇴 준비는 목표 목돈 하나로 끝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연금·은퇴·장수위험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연금 3층의 예상 수령 시기·금액·기간·물가 반영을 적는다.

-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연금 3층의 예상 수령 시기·금액·기간·물가 반영을 적는다.
-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연금 3층의 예상 수령 시기·금액·기간·물가 반영을 적는다.
-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연금 3층의 예상 수령 시기·금액·기간·물가 반영을 적는다.
-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연금 3층의 예상 수령 시기·금액·기간·물가 반영을 적는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청구에 상담한다.

-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퇴직금 일시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부채이자 절감과 평생소득 감소를 함께 계산한다.

- A. 현재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한 표에 둔다. 수령 방식과 세금은 제도·계좌별로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빚을 없애면 끝이라고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현재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한 표에 둔다. 수령 방식과 세금은 제도·계좌별로 확인한다.
- C. 이 선택은 '고수익 투자로 불리려 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현재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한 표에 둔다. 수령 방식과 세금은 제도·계좌별로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현재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한 표에 둔다. 수령 방식과 세금은 제도·계좌별로 확인한다.

7. 사례 '연금 시기'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건강·근로소득·가족수명·다른 자산을 넣어 손익분기보다 생활 안정성을 본다.

- A. 나의 현금흐름과 장수위험으로 결정한다. 공적연금의 최신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월액이 큰 쪽만 고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나의 현금흐름과 장수위험으로 결정한다. 공적연금의 최신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 C. 이 선택은 '주변 사람과 같은 시기를 택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나의 현금흐름과 장수위험으로 결정한다. 공적연금의 최신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나의 현금흐름과 장수위험으로 결정한다. 공적연금의 최신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8. 사례 '자녀 지원'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내 필수생활비와 돌봄비를 먼저 보호하고 지원 한도를 합의한다.

- A. 도움의 상한과 중단 조건을 정한다. 가족지원이 장기화되면 부모·자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필요한 만큼 모두 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도움의 상한과 중단 조건을 정한다. 가족지원이 장기화되면 부모·자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연금 담보 대출을 즉시 받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도움의 상한과 중단 조건을 정한다. 가족지원이 장기화되면 부모·자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도움의 상한과 중단 조건을 정한다. 가족지원이 장기화되면 부모·자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9. 사례 ‘돌봄비 급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공적 장기요양·보험·가족 돌봄 가능 범위를 확인해 세 시나리오를 만든다.

- A. 기간이 긴 위험으로 계산한다. 공적 제도의 인정·급여 절차는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
- B. 이 선택은 ‘한 달 비용만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기간이 긴 위험으로 계산한다. 공적 제도의 인정·급여 절차는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
- C. 이 선택은 ‘모든 자산을 급히 해지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기간이 긴 위험으로 계산한다. 공적 제도의 인정·급여 절차는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기간이 긴 위험으로 계산한다. 공적 제도의 인정·급여 절차는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

10. 사례 ‘고수익 권유’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송금·해지를 멈추고 등록·계약·보호 범위를 별도 확인한다.

- A. 연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분리한다. EDU-01의 사기 예방 절차와 EDU-12의 투자 점검을 함께 적용한다.
- B. 이 선택은 ‘지인이 소개했으니 투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분리한다. EDU-01의 사기 예방 절차와 EDU-12의 투자 점검을 함께 적용한다.
- C. 이 선택은 ‘생활비까지 옮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분리한다. EDU-01의 사기 예방 절차와 EDU-12의 투자 점검을 함께 적용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분리한다. EDU-01의 사기 예방 절차와 EDU-12의 투자 점검을 함께 적용한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역할을 구분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은퇴 현금흐름과 장수·의료·돌봄 위험을 시험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수령 시기·일시금·연금·운용·비용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고수익 권유·조기 인출·보호 범위 오해를 막는 규칙을 세운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11 가족금융
- EDU-12 투자 기초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예상연금 · <https://www.nps.or.kr/>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https://100lifeplan.fs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